

 바른 ICT 연구소 Barun ICT Research Center	보도자료	http://www.barunict.kr/
2018년 5월 2일 행사 진행됩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관련 문의: 02-2123-6694	barunict@barunict.k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Asia Privacy Bridge (APB) Forum 2018 Spring 개최

- 아시아 5개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참석
- 국가간,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 모색
- 5월 25일 발효되는 EU GDPR,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에 대해 논의

2018년 5월 2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바른ICT 연구소는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제5회Asia Privacy Bridge Forum (이하 APB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6년 시작된 APB 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학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국제 연구협력 공동체로서 유럽과 북미 중심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아시아 각국의 특성에 맞게 연구 및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APB 포럼에서는 “Trustworthy Privacy Across Asia”라는 주제로 국제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개인이 정보보호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유출발생시 피해 구제를 위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을 만들어갔다. 금년 5월 25일 발효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상의 개인정보 이동권 (Data Portability)의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규슈대학교의 나리하라 사토시 교수(법학대)는 현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소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Profiling)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홍콩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이스 라이 실장은 최근 벌어진 페이스북의 캠브릿지 애널리틱 사건으로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FTC), 영국의 정보위원회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와 협력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네이버의 이진규 이사는 EU의 GDPR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이동권을 준수하는데 따른 기술적 문제점들을 언급하였으며, 현재의 ICT 환경에서 개인정보는 컴퓨터 언어로 저장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옮기더라도 정보 주체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김범수 소장은 “ICT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EU의 GDPR 및 APEC의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 등 국제적 개인정보보호 제도들이 도입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 5회 APB 포럼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APB 포럼이 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협력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정부 기관 간 협력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모바일 홈페이지

<http://www.barunict.k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설립됐다.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IT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바른ICT연구소, 02-2123-6694, barunict@barunict.kr